



##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의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관련 협조요청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 및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조치현황 및 입장을 안내해 드리오니, 한국 방문 예정자(문의 내지 예약자 등) 및 관련 업계에 이 내용을 전파하여 안전한 한국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우리 정부는 12.4.(수) 국내 모든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민주 절차에 의해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음을 각국에 알리며,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광·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나. 현재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정부의 관리와 지원 아래,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관광 활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 우리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한국여행과 관련된 안내·관광통역·불편신고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지원)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 기관 및 여행업계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 내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로 통보해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장, (사)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행정사무관

이미란

국제관광과장

이혜림

관광정책국장

전결 2024. 12. 5.

김정훈

협조자

시행 국제관광과-5216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15동 2층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839

팩스번호 044-203-3476

/ [lmr0221@korea.kr](mailto:lmr0221@korea.kr)

/ 대국민 공개